

학과 신설·개편...지역대학 살아남기 안간힘

학령인구 감소에 생존전략 취업률 높고 학생들 선호 인공지능·애완동물보건과 AI·보건계열 대폭 강화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입학 인구 격감에 따른 학생 모집이 절대적인 과제가 되면서 '살아남기' 전략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당장 내년 학생 모집부터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개설하는가 하면 취업률이 높거나 현대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학과들을 새로 개설하거나 통폐합했다.

대다수 대학들이 총력을 기울이는 분야는 역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미래형 학과이며, 전통적으로 강세인데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 보건계열은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학과의 수요·공급을

적합한 공력적인 행정이지만 역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생존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에 인공지능학부·지능형 모바일러 융합학과·빅데이터융합학과를, 여수캠퍼스에는 헬스케어메디컬공학부(바이오헬스케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와 석유화학소재공학과, 스마트수산자원관리학과를 신설, 내년부터 첫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로봇과 미래에너지, 빅데이터금융, IoT인공지능 등 4개 융합전공(학과)을 하나로 묶어 'AI 융합대학'을 신설했다. 전남대가 단과대학을 신설한 것은 2005학년도 간호대에 이어 15년 만이다. 빅데이터·AI 기반 스마트 아쿠아 팜 협동과정도 국내 최초로 신설했다.

조선대도 2021학년도부터 첨단 분야 학과인 첨단에너지공학과와 인공지능공학과를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원은 50명씩, 모두 100명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학과를 신설

했다. 소방재난관리학과,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K-컬처엔터테인먼트, 글로벌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가 신설 또는 변경됐다.

교육부 선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인 호남대는 '전교생 AI 융합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AI 기초융합 교양과목 개발 ▲전공교육과정에 AI 교과목 의무 개설 ▲모든 학과 1개 이상 AI연계(융합) 전공 개발을 골자로 하는 혁신 교육과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AI 관련 교양과목은 빅데이터와 AI 소양영역의 이수 학점을 3학점에서 9학점으로 대폭 늘리고, 각 전공마다 2개의 AI 교과목(6학점)을 수강토록 해 AI과목 15학점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동신대는 최근 '2020년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스마트에너지시티 산업분야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2017년부터 AI관련 교양과 전공과목을 개설해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건축공학과에 4차 산업혁명과 건

축전공 과목을 새로 개설해 드론과 3D프린팅을 건축산업에 접목시키는 수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여대는 AI융합학과, 항공보안경호학과, 애완동물보건학과를 신설한다. 애완동물보건학과는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최초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4년제 최초로 동물보건사 양성과 반려동물 산업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애완동물보건학과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 4년제 여자대학 최초로 항공보안경호학과를 신설해 2021학년도부터 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AI융합학과는 광주시의 정책(인공지능, 문화관광분야 실감미디어)에 발맞춰 교육과정과 취업분야를 준비하고 있는 첨단학과이다.

이와 함께 동강대는 2021학년도부터 지적과와 호남권 전문대 최초의 드론과를 공간정보드론과로 통합·운영키로 했고, 고품화 시대를 맞아 방사선과와 작업치료과 등의 학과 신설로 보건계열 계열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시행된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빛고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전국 48만명 수능 모의평가...평가원 "예년 출제 기조 유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어 '미니수능'으로 불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가 18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2061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생 41만 6529명과 졸업생 6만

6757명 등 모두 48만 32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평가에 광주에서는 재학생이 61개교 1만 5319명, 졸업생은 13개 학원에서 1316명이 응시했다. 전남의 경우 재학생 101개교 1만 3114명, 졸업생은 3개 학원에서 295명이 응시했다.

평가원은 이날 6월 모의평가 문제는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

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적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 기조 분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국어와 영어, 수학 나형은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쉬웠다.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반면 수학 가형은 전체적으로 중위권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아본 고3 재학생들 중 상당수는 평가원 설명과는 달리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평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에 따른 고3과 재수생과의 학력격차 우려해 평이하게 출제했지만, 재학생들은 영역별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많이 포함됐었다고 토론했다.

이번 모의평가 결과는 다음 달 9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광주교육청, 교사해임 파문 명진고 특감 검토

학교 방문 학생·교사 의견 청취

광주교육청이 교사 해임 문제로 파문이 확산하는 사립학교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특별감사와 특별장학(행정지도) 등을 검토중이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광주교사노조와 학생들이 제기하는 명진고 문제점과 교육과정,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달 특감감사에 이어 추가 특감감사와 특별장학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감감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명진고 사학법인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 교육청 사학정책팀 관계자들은 전남 명진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

을 청취했고, 학교 측이 고소한 재학생 2명과 타교생 1명, 졸업생 1명 등 4명의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고소 취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또 학생들이 교사 해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교내 게시판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광주교사노조는 명진고 전 이사가 2017년 교사채용 과정서 A교사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법인측이 보복 차원에서 A교사를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학생들도 해당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해당 교사를 비위행위로 해임한 것이지 보복성 해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선대, 교내 매장 4개월간 임대료 50% 감면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교내 소상공인 매장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조선대는 최근 기획위원회를 개최, '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제한되면서 대다수 강의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탓에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직면한 대학내 소상공인 임대 매장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임대료감면 대상 업소는 구두수선소를 비롯해 위생용품자판기, 무인세탁기, 복사점, 매점, 식당, 카페, 사진관, 사물함 등이며, 감면은 2020년 3월-6월 4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이다.

조선대 민영돈 총장은 "최초의 민립대인 조선대가 지역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여성 맞춤형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지역 사회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여성행복응원센터'(이하 여성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성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출산·육아, 경력단절, 성폭력 피해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26일 광주 YWCA에서 부모교육 연구소 임영주 박사의 '부모공감토크'로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여성센터는 심이 필요한 여성들의 공간인 '내 마음 도닥도닥, 찾아가는 맘카페'와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 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마음 돌봄 활동가 양성과정, 아바 육아교실·요리교실 등 출산과 육아로 지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기념재단, 5·18 장학생 20명 모집

5·18기념재단은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2020년 5·18 희망장학생'을 모집한다.

희망장학금은 부모의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며, 대상자는 4년제·전남대 무관하며, 전공도 제한이 없다. 장학금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총

20명이다.

장학금 희망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등 각종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은 8월 중 지급되며, 수여식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